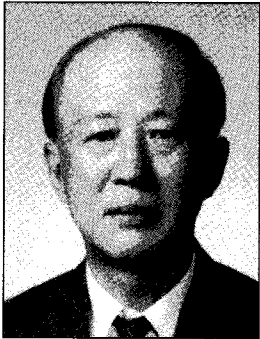


내실 바탕으로 한 성장에 주력

첨단 종이 생산 첨단시설 갖춰



◀국일제지(주) 김락서 대표이사

연혁

- 1978. 8. 법인설립(지류제조업)
- 1978. 8. 초지 1호기 가동
- 1982. 4. 초지 2호기 가동
- 1986. 6. 초지 3호기 가동
- 1988. 9. 초지 5호기 가동
- 1997. 초지 2, 5호기 증설

일부에서는 경기가 회복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고, 다른 한편은 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어 기업들은 경영상의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예상한다는 것이 워낙 변수가 많고 정부의 시책, 해외의 돌발적인 호재와 악

재 등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제지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제 시장상황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으로 최근에는 중국 및 동남아 업체의 덤핑공세로 고전을 겪었다. 세계 최대의 제지업체인 APP사의 부도 위기로 최근 인쇄용지 및 판지 제조업체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국내 제지업종 중에서는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인 위생지 시장을 제외한 지종은 경기 상황, 특히 수요 업종의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 제지업체는 다각도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중이다.

식품 포장용지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국일제지(주)는 1978년 창업한 이래 꾸준한 발전을 지속하여 현재 동종업계에서 중견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며, 최근 (사)한국포장협회 가입을 계기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공장은 6,000여평 규모이고 약 100여명의 종업원이 일하고 있다.

국일제지의 주생산품은 식품포장용지인 박엽



▲ 국일제지(주) 용인공장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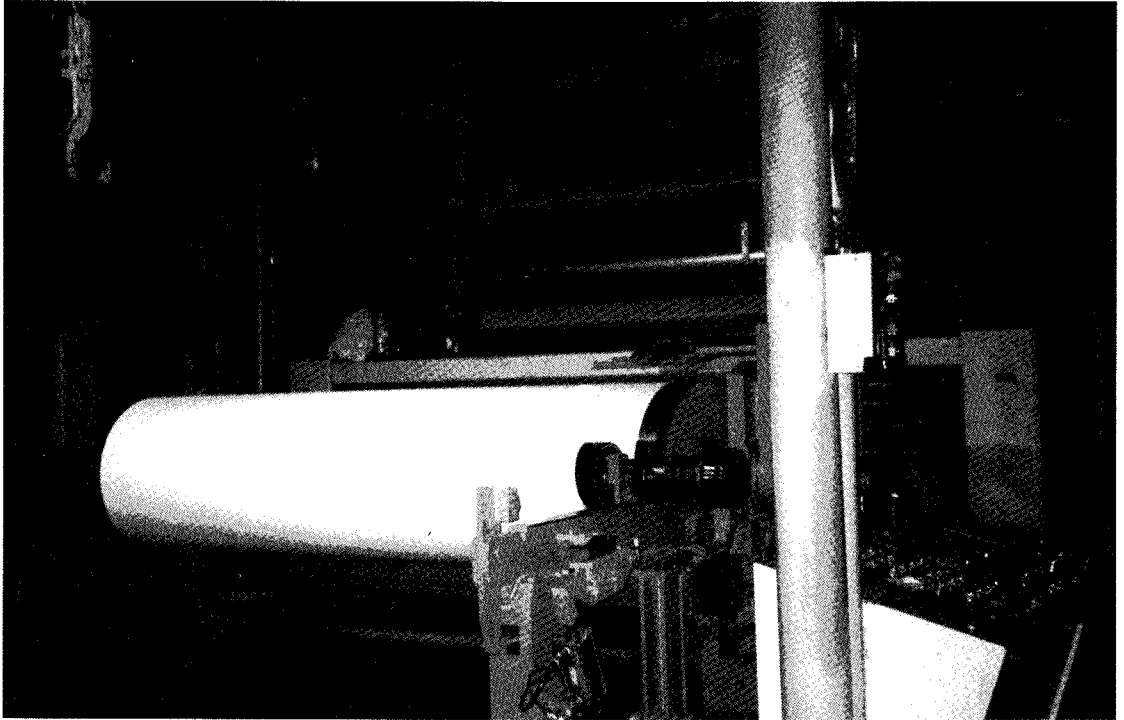
지와 백상지로 현재 전체 매출의 40% 가량을 점유하고 있다. 박엽지는 평량이 m^2 당 30g이하의 지종으로 주로 캔디포장지, 껌 내포장지에 들어가는 종이를 말한다. 좀 더 평량이 무거운 백상지의 경우는 껌 외포장지, 햄버거 포장용지, 아이스크림 포장용지에 주로 사용되며 국일제지는 이들 포장용 지종을 생산, 연포장 가공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또 하나 국일제지에서 생산 지종 중에서 소개할만한 지종은 강판간지로 스텐레스 강판 표면 보호용으로 사용되며 현재 국일제지는 연간 30억원 규모의 수출을 하고 있다.

이 외에 국일제지의 생산품목은 담배용지인 다

공권지, 일반권지, 필터용지 등이다.

창사이래 국일제지가 역점을 두는 사항은 폐수처리 문제이다. 국일제지는 자체 폐수처리 시스템을 가동, 공정 상에 투입되는 각종 화학약품의 재처리를 통해 수질오염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국일제지가 위치한 지역의 주위에는 농지가 많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폐수처리 뿐만 아니라 국일제지의 공장 곳곳에는 잘 정돈된 인상을 많이 받았다. 평소 인식에도 제지회사하면 종이가 연상되고 종이하면 깨끗하다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각인되기 마련이지만 실제 업체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국일제지는 제지회사에 걸맞게 공장을



▲ 국일제지(주) 초지기

관리하고 있었다.

국일제지의 창업자인 최영철 회장은 용인송담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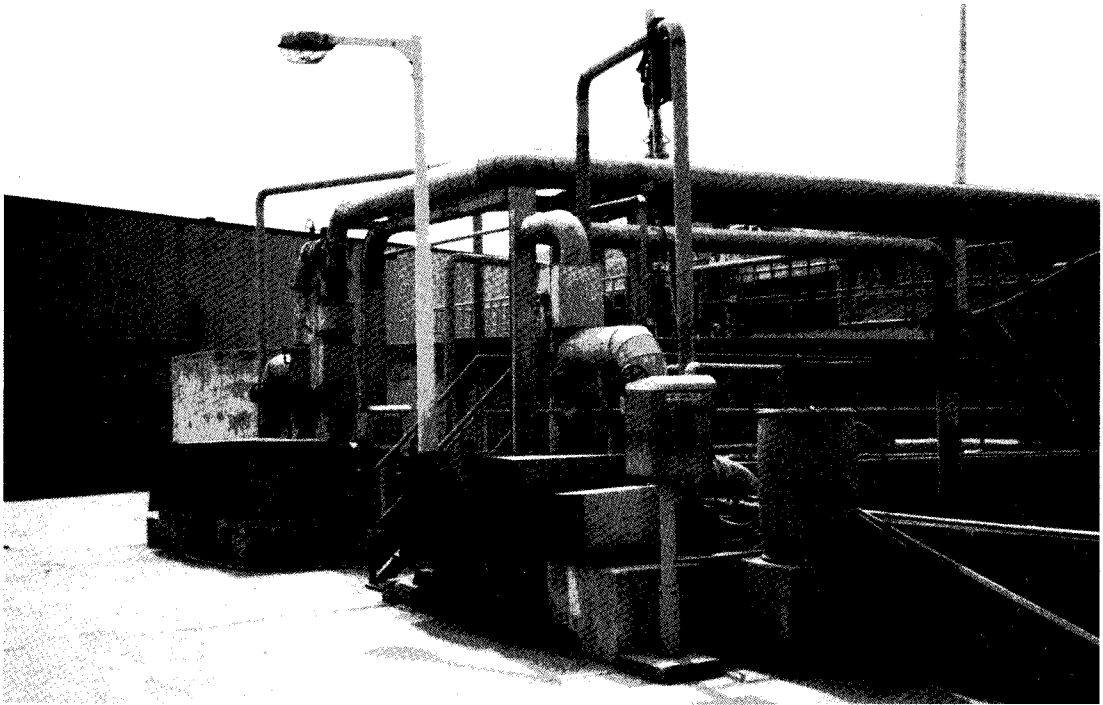
일찍부터 제지 및 포장에 관심이 있어온 최 회장은 개교당시부터 제지패키징시스템과를 개설 현재 일부 학생들이 국일제지에 취업을 하고 있으며 산학협동의 차원에서 실습 및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아울러 특별히 소개할 만한 회사의 자랑거리는 없지만 국일제지는 창사한 이후 노사분규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점은 경영진과 사원들간의 유대관계가 그만큼 친밀하게 지내온 결과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말

했다. 이 같은 이유에는 국일제지가 지난해부터 사원들에게 3박 4일의 제주도 여행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에게 작은 것이나마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으며 큰 호응도 얻고 있다.

기업은 외형적 성장 못지 않게 내실의 발전이 중요하다. 그간 우리나라 기업 풍토에서는 외형적 성장을 중요시한 나머지 내실을 기하는 것을 소홀히 해 위기가 닥치면 너무 쉽게 무너지는 기업이 많음을 요 근래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잘 알 수 있다.

기업의 경영진들도 내실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으며 어찌면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업을 경영하다보면 참을 수 없는 유



▲ 국일제지(주) 폐수처리 시설

혹이 외형적 성장이라고 한다. 최신의 설비를 도입하고 싶고, 공장을 늘리고 사원들을 더 채용하여 남들이 알아주는 번듯한 회사를 만드는 것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일제지는 설립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인 설비 증설 및 확대를 통해 발전을 꾀해 왔다. 회사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연혁 24년에 비해 어떻게 보면 성장속도가 더디다고도 할 수 있다. 그만큼 내실을 기했기에 국일제지는 전반적인 동종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설립 이래 식품포장지, 담배포장지, 강판간지 등 기능지 위주의 생산을 지속해온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일제지가 새로운 21세기를 맞아 잡은 화두(話頭)중의 하나는 첨단 종이의 생산이다. 현재까지 축적 기능지 생산의 기술력을 더욱더 발전시켜 좀 더 첨단화한 종이를 생산하겠다는 바람이다. 이를 통해 '종이 예술'의 창출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 미래가 있는 국일제지가 되겠다는 목표이다. ☐

박기진 기자

신제품 및 업체 소개
 월간 포장계 편집실
 (02)835-9041